



하느님 뜻에 순응하는 참 신앙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는 참 선교사
시간을 걸으면서 영원을 찾아가는 참 순례자

가톨릭교리신학원 소식지
제92호 | 2019년 11월 5일

한 알의 밀씨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시편 84,6)



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같은 학과 학우 세 분과 제주 청수 공소로 선교사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1956년에 설립된 청수 공소는 고산 본당 소속으로 맑은 물을 뜻하는 청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화 데레사 성녀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공소라는 명칭에서 왜소함이나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청수 공소는 2000년 복제주군 건축상(특선)을 수상한 견고한 성당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울린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다양한 피정 단체들로 연일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청수 공소에는 가톨릭교리신학원 종교교육학과 48기 선배님이신 박향연 카타리나 선배님께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청수 공소에는 약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포함한 요셉관과 마리아관, 주방과 식당으로 사용되는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선교사님의 일정을 따라 매일 미사 참례와 본당 관리, 신자 방문 동행 등 선교사 체험과 피정팀의 입-퇴실 전후 성당과 피정동 정리, 주방 및 식당, 화장실 청소 등 공소 관리였습니다. 마침 방학-휴가기간을 맞아 신앙캠프가 한창이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정팀이 드나들어 공소 관리는 가장 고되고도 막중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퇴실 후 바로 입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용한 침구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세탁하여 개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업상 책상에 앉아 컴퓨터 마우스만 까딱이던 저는 일을 많이 하면 손바닥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수많은 피정

팀의 도착과 떠나는 모습을 보며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 들어올 때와 떠난 뒤의 모습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그 본당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서는 고된 일정 틈틈이 성지와 명소를 둘러보게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중 고산 성당에서 새벽미사를 마친 후 곳은 날씨 속에 강행한 김대건 신부님 순례길은 제 안팎으로 가득 영긴 생각의 곁을 차분히 고를 수 있는 호젓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신 신자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직접 재배하신 싱싱한 야채를 넘치게 얻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주시는 그 모습은 후한 인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애써 오신 선교사님의 노력과 친근함으로 방문자인 저희까지 그냥 얻게 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날 저희는 이 많은 야채를 정성스럽게 다듬어 부침개를 부쳐 공소 신자 분들 댁을 방문하여 선물로 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광지로서 짧게 지나친 제주를 보다 더 가까이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힘들게 한 높은 습도와 고지대 산간마을의 변화무쌍한 날씨,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 어려운 제주도 방언, 굴 재배 수입이 60%이상인 지역의 특성상 과수원과 함께 있는 주택과 생활환경, 그 안에서 나이대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뚜렷이 구분되는 타 지역(육지)에서 귀촌한 분들을 마주하니 또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파견된 그곳에 가장 낮은 이이며 가족이어야 하는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적극적으로 면서도 조심스럽게, 많은 것을 아는 만큼 세심하

게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자동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또 선교사라는 이름 앞에 당연히 요구되는 것과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주고 싶은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잘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처럼 답을 구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늦은 밤 요를 깔고 누우면, 이 늦은 시각 세상의 선교사들은 그 고된 하루 끝에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해하면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마지막 날 밤 우리 팀은 그동안의 일정을 되새겨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된 우리 선교사 체험 팀에서 굳이 나이순으로 따지자면 저는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일에서도 저는 막내였습니다. 제가 '귀엽고 일 잘하는' 막내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제외한 우리 팀의 일 솜씨와 적극성, 위기 대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잘하는 것 없는 제가 우리 팀의 탁월한 능력 앞에 조용히 따르기만 해야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너무 소심하게 비춰져서 도리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지금도 많이 후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였을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잘 다녀왔습니다' 입니다. 낯선 세상으로 긴장하며 나갔던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들어오며 드는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절로 소리쳐지는, 가장 기분 좋은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제가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이번 선교사 체험은 너무나 바쁘고 몸은 힘들었지만,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멈춤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멈춘 시간 속에서 저는, 저와 같이 가려고 기다리며 응원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심에 아직도 아이인 제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 잘 자랄 수 있겠지요?'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제 입에서 소리쳐 나오는 즐겁고 당당한 인사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인숙 메리엔젤(교리2)



선교사 체험기

7월 26일(첫째 날) 서울 도봉구 집을 나선 시각이 오전 7시 20분, 지하철을 이용하여 김포공항 도착 시간이 9시 5분, 집을 나설 때 내리는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고 심할 정도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었다. 그래도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이륙하여 공항 도착 시각은 11시 40분, 제주 하늘은 서울 하늘과 달리 맑고 청명하였다. 제주 청수 공소에서 선교사 일을 하는 박 선교사의 디젤 차량을 타고 공항에서 목적지인 한경면 청수리 공소까지 약 50분이 소요되나, 박선교사의 용무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고, 인근 마켓에서 반찬과 찌개거리를 구입하고 공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경이었다. 짐을 풀고 나서, 박 선교사가 우리 일행 3명에게 내일 오전 9시에 잔디 깎는 작업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우리는 내일 작업에 앞서 미리 잡초 및 토끼풀 뽑는 작업을 하였고, 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 김치찌개와 밀반찬으로 저녁을 먹었고, 청수공소에서 10여분 떨어진 고산성당에서 오후 8시 미사에 참여하였다. 미사 중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감기 들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별 탈 없이 지났다. 미사 후에 박 선교사와 함께 인근에 있는 수월봉(높이 77미터로 화산재 오름의 하나)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니 배의 불빛만이 드문드문 바다에 떠 있었다. 김

선교사의 설명으로 서쪽 바다와 차귀도를 배경으로 수월봉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일몰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밤이라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7월 27일(둘째 날) 수원교구 모 성당 복사 20여명이 2박3일의 여름캠프를 마치고, 제주교구 모 성당 주일 학교 학생 50여명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공소는 입소자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 가장 바쁘다. 청수공소는 성당, 지하에 요셉관, 지상에 마리아관, 평화의 집, 그리고 성당 뒤쪽에 선교사집,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오전 8시 30분 성당에서 아침 성무일도를 바쳤고, 오전 9시 공소 신자들이 잔디 깎기, 나무 다듬기를 하면 잔디 정리 및 청소로 뒷정리를 하였다. 끝이어 우리는 이불 털기, 이불 말리기, 베갯잇 교체하기, 세면장 청소, 화장실 청소로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캔 등을 동네 쓰레기 집하장에 버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서 3시 이후에 이것들을 버렸고,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것은 공소 내 위치한 소각장에서 태웠다. 왜 그리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정신없이 흘러갔다. 공소에서 출발하여 오후 5시 고산 성당에 도착하였다. 고산 성당에서 시작되는 김대건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이 순례길은 고산성당에서 신창성당



까지 12.6킬로미터이나 우리는 고산성당에서 출발하여 자구내포구, 당산봉을 거쳐 목적지인 용수성지까지 7.6킬로미터의 길을 걸어 1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용수성지에는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 성당과 기념관이 있었다. 기념관에서 김대건 신부 관련 자료를 보았고, 외부에는 '라파엘호'라는 작은 돛단배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 배에 의지하여 목숨 걸고 항해한 신앙과 선교의 열정을 기념관 옥상에서 바닷가 풍경을 보며 묵상하였다.

7월 28일(셋째 날, 주일) 자고 일어나니 아침에 어깨가 빠근했고 약간 경련이 일어났다. 전날의 작업 중에서 이불 털기가 어깨에 무리를 준 모양이다.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여름이라 그런지 따뜻하고 미지근한 느낌을 주는 온풍이었다. 아침 성무일도를 마치고 나니 공소 한편 잔디밭 위에서 모 성당 아이들의 물놀이, 그림 퀴즈놀이, 물총싸움 등 다양한 모습이 눈에 펼쳐졌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오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모 성당 아이들이 떠난 후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삼겹살 불판구이도 깨끗이 청소되지 않아 있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잘 정리되지 않아 아쉬웠다. 어제 했던 이불 털기, 쓰레기 정리와 재활용 분류, 불판구이 청소 등을 마치자 대전 교구 모 성당 선발대가 도착했다. 선발대는 내일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짐을 풀고, 현수막, 음식 및 빨래줄 걸기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오후 5시 공소를 떠나 10분 정도 달려 추사 기념관에 도착했다. 추사가 그린 세한도, 힘 있고 살아 넘치는 글씨 '판전'이 눈에 들어왔다. '약 9년의 유배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서체에 매달려 추사체가 완성되었을까' 노력과 인내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가슴이 저려 왔다. 이어서 간 곳은 대정성지, 정난주 마리아의 묘이다. 그는 황사영

백서로 유명한 황사영의 부인으로 모슬포에서 37년의 노비 생활 중에도 주님을 위해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나 또한 그녀의 삶을 받고 싶다. 오후 8시 청수 공소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고, 아침 성무일도 바칠 때와는 달리 미사는 엄숙했으나 강론은 짧고 강렬했고, 아침과 저녁의 성당 분위기가 너무 달라 내게는 낯설었으나 감동적이었다. 미사 후 신자들과 함께 비트치를 마시고 신부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7월 29일(넷째 날) 전날 저녁 미사 마친 후 우리는 9시가 넘어 세실리아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 잠자리 이동으로 불편한 것인지 새로운 집에 덜 적응되었는지 나는 동료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가 길어져서 우리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오전 6시 30분에 고산본당에서 미사가 있었고, 미사 지향으로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김 선교사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기도하였다. 지난 번 미사 때 보지 못했던 성당 위 천장 모습, 나무로 빛이 퍼질 때처럼 신앙이 퍼져 나가는 모습, 밤색 톤의 나무라서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신앙의 깊이, 신자석 뒤편으로는 파이프오르간이 위치해 있어 장중한 느낌이 들었다. 오전에 식당에 들러 제주 몸국을 먹고 이시돌 목장으로 향했다. 새미 은총의 동산은 이시돌 목장 내에 있는 성지로 예수님의 공생활과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이어서 성 클라라 수도원 성당과 성당 내 다미아노 십자가, 성당 내 아이 보리 색이 단아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었다. 오후 1시 30분 김 선교사가 추천한 차귀도 유람을 위해 우리는 자구내 포구에 도착하였다. 오후 2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고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차귀도에 도착했다. 차귀도를 걸으며 70년대 사람들이 살았던 옛 집터와 무인등대, 대나무, 매와 물수리, 장군바위, 독수리 모양

의 바위, 배를 덮을 듯이 넘실대는 파도, 배에 부딪쳐 부서지는 포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7월 30일(다섯째 날) 오전 8시 5분에 우리는 공소에 도착하였고, 사무실에 있으니 두 가지 고장 소식이 들렸다. 하나는 식기세척기 고장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오르지 않아 건조되지 않은 것과, 오전 미사 때에 스피커가 뻑뻑거리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박 선교사가 기사를 불러 식기세척기는 수리 후 가동되었고, 스피커는 볼륨 스위치를 내려놓으니 정상으로 가동되었다. 오전 9시 10분 아침 성무일도를 마치고, 주일 미사 후에 신자들에게 비트차를 내놓아야 해서 비트를 말리려고 야외식탁 위에 펼쳐 놓았다. 아침 식사 후, 캠프 온 아이들이 삼겹살 불판을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삼겹살 불판의 기름때를 닦고 먼지가 묻지 않게 비닐로 덮어 씌워 놓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 오후에는 교래자연휴양림, 사려니 숲길, 김영갑 갤러리를 방문하였다. 교래자연휴양림은 생태체험지구와 삼림욕지구 등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난대수종과 온대수종이 공존하며 식물종이 다양한 원시림의 특징을 나타내는 숲으로 우리는 생태체험지구를 30분 동안 산책하였다. 더운 날씨라서 숲속의 그늘이 그리 시원하지 않았고 걸으면서 목과 등줄기에 간간히 땀이 흘렀다. 입구에 '뱀 조심'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뱀은 보이지 않았다. 사려니 숲길은 편백나무가 촘촘히 있었고 마침 한편에서 선남선녀의 웨딩 촬영이 있었다. 김영갑 갤러리는 제주도 오름을 배경으로 파노라마처럼 찍은 그의 사진들이 전시되었는데 사진 하나하나마다 그의 혼과 열정, 그리고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느낌이였다. 루게릭병을 앓다가 2005년에 사망(48세)한 그의 뼈는 갤러리 앞마당에 뿌려졌다고 한다.

7월 31일(여섯째 날) 7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오

전 7시 세실리아의 집에서 모닝커피, 바나나 1개, 달걀 1개를 먹고 나니 속이 든든하였다. 세실리아의 마음 씩씩이가 고맙고 정겨웠다. 낯모르는 누군가에게 집과 방을 내주는 마음이 개방적이며 포용적이었다. 오전 8시 청수 공소에서 아침 성무일도를 바쳤다. 오전 9시 30분 건조시킨 비트와 옥수수를 거두어 들였고 한가롭고 여유 있는 아침이었다. 11시 30분 고산본당에서 신부님을 만나 30분을 달려 한림에 위치한 H센터에서 점심을 했다. 점심으로는 고등어회와 우렁이를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커피에 담긴 향이 바다의 넘실대는 파도 소리와 조화를 이루듯 코끝과 목을 적셨다. 공소 차량이 디젤이고 연한이 오래되어 일 년에 두 번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이날이 바로 그 날이라 오후 3시에 동료 한명이 공업사로 향했다. 오후 6시 30분 레지오 주회(상아탑 Pr. 단원6명)를 참관하였는데 1700차 주회로 3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단원들은 공소에서 냉담 신자 방문, 공소 일 참여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주회 후 이어서 오후 8시 미사에 참례하였는데, 단원들과의 만남 후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미사 후 8시 45분 저녁으로 갈치조림과 미역 냉국을 먹었다.

8월 1일(일곱째 날) 당초 일정은 그날 제주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박 선교사가 그날 대전교구 모 성당 캠프가 끝나고 인천교구 모 성당 여름 캠프가 들어오니 하루 연장을 요청하길래 우리는 선뜻 동의하였다.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 공소의 장날이기 때문이다. 아침 6시 30분 고산성당에서 우리 포함 신자 32명이 미사를 드렸다. 떠나기 전날 미사라서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이 다른 날 미사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형언하기 힘들게 충실하게 소임을 했는가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느낌, 확신을 갖지 못한 느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머무



르고 주님께 은총을 갈구했던 느낌. 바로 그런 느낌이 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전 작업은 이불 털기, 이불 말리기, 화장실 청소였다. 오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 종이 태우기 등의 작업을 했다. 종이 태우는 도중 한 동료는 종이 널빤지에 붙은 비닐을 집어 들어 화상을 입었다. 고산 성당 인근에 있는 내과 의원에서 오후 5시 10분에 도착했지만 그 의원은 이미 오후 5시에 문을 닫았다. 근처 약국에서 약과 거즈를 사서 공소에 왔고 그곳에서 약을 먹고 거즈로 손을 감쌌다. 우리는 마음이 산란해져서 저녁 식사도 박 선교사와 함께 하지 못한 채 각자 식사를 했다.

8월 2일(여덟째 날, 마지막 날) 오전 8시 30분과 8시 45분 우리 각자는 제주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오전 6시 공소에서 아침 성무일도를 바쳤다. 제주 공항 도착은 7시 15분이었고, 공항 가는 도중에 박 선교사와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선교사는 공소에서 선교사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무장, 시설관리장, 주일학

교 선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박 선교사 혼자서 공소를 관리하기에 힘에 부친다는 사실, 신자 집의 방문에 대해 신자들이 꺼려한다는 사실, 박 선교사와 함께 있는 개의 관리, 비트와 옥수수 말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교사 체험을 하기 며칠 전 7월 22일(월) 오후 2시에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나와 동료 2명에게 축복과 안수를 해주셨다. 내 머리에 손이 얹어질 때 정신과 몸이 벽차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으로 소명 의식이, 다른 한편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선교사 체험을 시작할 때 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점차 일과 작업에서 즐거움과 흥겨움을 느끼고,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하느님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의 평화와 숨결을 의식할 수 있었다.

김용승 요한(교리2)

성 프란치스코에게 마음을 두고 오다

프란치스칸 성지순례를 다녀와서(1)

■ 길 떠남

“우리는 하느님 편으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이 라는 장벽, 그 바다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가장 닮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하느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겠지요. 그 희망을 품고 순례를 떠났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으로 종신 서원을 갓 마치고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길, 그 길이 이번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피조물처럼 세상의 빛이 눈을 부시게 하였지요.

교리신학원에서 1학기 종강을 하자마자 서둘러서 짐을 챙기고 길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13박 14일의 순례 일정은 로마에서 폰테콜롬보로, 이어 성 프란치스코의 고향인 아씨시를 경유하고 피렌체를 들러 성인이 오상을 받은 라 베르나로 향하는 설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순례지 현지의 날씨는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의 연속이었고, 우리의 행로는 도

보 순례길이 많았습니다. 몸 상태도 영 좋지 않았고, 순례 기록까지 맡게 되어 마음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애초 내가 기대했던 순례길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순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처럼 이 길은 광야와 어둠을 가로질러야 할지 모릅니다. 가끔은 심연으로 그늘진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향한 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껍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순례길은 내면의 어두움과 맞닥뜨리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어둠이 순례 초기에 고개 들고 올라선 것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보니 다른 순례객의 모습에서 불만거리를 찾게 되었지요. 본질은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었던 것임을 묵상에 깨달았습니다. 나의 그늘을 순례길이 거울처럼 비춰준 것이었습니다.

심혜연 크리스티나(교리)



제54회 밀씨축제

밀씨축제 일정 : 2019년 10월 19일(토)

시간	행사내용
09:00	미사
10:00-11:00	순교자 영성 강연 (조한건 신부)
11:00-12:00	동문 초청 강연 (원재홍 베네딕도)
12:00-13:30	점심 식사
13:30-17:00	성지 순례
17:00	강복

〈도보 성지 순례 코스〉

신학원 출발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당 → 종로 성지성당 → 좌포도청터(단성사 앞) → 이벽의 집터(수표교) → 김범우의 집터 (표석: 장악원) → 서울교구 역사관 → 명동대성당 지하소성당 → 명동대성당 성모동산



총동문회에서는 가을 행사인 동문의 날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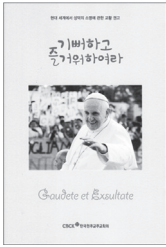
1. 주제: 내포 지방의 천주교
2. 일시: 2019년 9월 28일(토)
3. 순례 장소: 예산 여사울 성지, 당진 합덕성당,
서산 상흥리공소
4. 참가 인원: 52명 (졸업생 51명,
재학생 1명-2학년 교리교육과 대표)

내포지방은 충청남도의 태안반도와 차령산맥 서북부 지역을 일컫는다. 내포지방은 초기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전파 지역 중 하나로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여사울 출신의 이존창이 1785년경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교통로를 따라 주변 지역으로 전도하여 초기 한국 천주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내포 신앙공동체의 중심지는 삼교천과 무한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 범위의 지역인데, 이곳은 현재 당진군 합덕읍, 예산군 신암면과 고덕면 일대에 해당된다. 이수로를 따라 여사울, 김대건 신부의 생가인 솔피, 초기 공동체가 성립되었던 신리, 황무실 등이 분포한다. 이존창은 신자들 사이에서는 천주교의 교주(敎主)로, 박해자들에게는 호서(湖西) 서학의 괴수로 불렸다. 그는 천주교 전파뿐만 아니라 가성직제도에서 신부로 활동하기도 했고, 북경으로 신자들을 파견하는데 참여하기도 했으며 주문모 신부의 피신 길을 돕기도 했다.

1800년대 후반 내포지방 신앙 공동체의 중심 본당은 합덕 성당과 공세리 성당이었다. 1897년 공세리에, 1900년 합덕에 한옥 성당과 사제관이 신축되었고, 1921년 공세리에, 1929년 합덕에 현재 볼 수 있는 고딕 변형의 벽돌조 양옥성당이 구릉지 위에 신축되었다. 그 중 합덕 성당은 주변 토지 수십만 평을 매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다. 합덕 본당에서 생산된 쌀은 당시 교회 및 신학교의 운영비, 가난한 교우 구제, 새로운 신자 확보 등을 위해 쓰였고, 합덕 성당은 우리나라 굴지의 교회 지주가 되면서 내포지방뿐 아니라 우리나라 천주교의 중요한 자금줄이었다. 합덕 성당은 30여명의 사제와 80명 정도의 수도자를 배출하였다.

상흥리 공소는 초기엔 가재 공소라 했는데, 신부가 상주하면서 한 때 가재 본당으로 승격 되었다(1919년~1937년). 1919년에 한양절충식성당이 신축되었는데, 전통 한옥과 유럽의 성당 건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공소는 박해를 피해 들어온 신도가 정착하면서 성장한 교우촌이다. 이곳도 규모는 작았지만 합덕 성당과 마찬가지로 성당 앞 가재들의 토지 상당 부분이 교회 소유였다. 이곳은 마을의 높은 곳에 성당이 있고, 그 주변에 신자 가옥과 교회 토지가 분포하는 모식적인 교우촌이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 헌장에서 강조하듯이, 성덕은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야 한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헌에서는 영지주의에서처럼 어떤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또는 펠라지우스주의에서처럼 인간 자신의 의지적 노력만으로 거룩함에 도달하려 하는 오류들을 배격하면서 마태오 복음서에 제시된 참된 행복의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권고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마태 5,12). 하나님의 부르심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완전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다른 문헌들이 그렇듯이 이 교황 권고 역시 어렵지 않은 표현들로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으며, 복음에 따른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식별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준다.

♣ 2019학년도 하계연수회

통신신학교육과정 하계연수회가 6.29~30, 7.6~7 동안 진행되었다. 국내 및 해외 각 지역에서 1,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강의를 통해 1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영원으로의 여정

◆ 교부학을 마치면서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지명, 인명, 지도’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전례 용어의 근원도 다시 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교부님들의 고행과 수도 생활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복한 신자들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2014-1008 신인식 아우구스티노)

루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몰입 되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읽는 내내 ‘아~’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른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은총으로 잘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속과의 타협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가 이용되었던 시간들에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사 공부 자체 믿음과 영적 성장에 큰 도움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2018-0345 문정인 요안나)

◆ 찬미예수님, “세계교회사”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지

<p>통신신학교육과정 소식</p>	<p>* 답안접수 마감 : 10월: 10.21(월), 11월: 11.20(수) * 동계연수회 일정 : 1차:1.4(토), 2차:1.5(일), 3차:1.11(토), 4차:1.12(일) (※학년별 자세한 일정은 12월초 공문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p>
<p>신학편지과정 소식</p>	<p>* 답안접수 마감 : 10월: 10.28(월), 11월: 11.27(수), 12월 : 12.27(금) * 신학편지 강좌 : 12.14(토)</p>

교내 소식

♣ 2학년 선교사 청원예절

- 종교교육학과 : 12월 2일(월) 공동체미사
- 교리교육학과 : 12월 5일(목) 공동체미사

♣ 2학기 종합 및 평가 : 12월 9일(월)~13일(금)

♣ 2학기 종강 : 12월 13일(금)

♣ 동계방학

12월 16일(월)~2020년 2월 28일(금)

♣ 2019학년도 졸업식

- 대상 : 교리 60회, 종교 50회
- 일시 : 2020년 1월 18일(토)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 2020년 3월 2일(월)

♣ 2020학년도 입학·개강 미사

2020년 3월 2일(월)

가톨릭교리신학원 후원자 모집 안내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는 본원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사랑을 나눌 후원자 분들을 환영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물론 교리신학원에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납부하시는 후원금은 본원의 발전 운영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가 되시면...

1. 매월 첫 목요일 공동체미사 때 은인들을 위한 감사미사와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 소식지 『한 알의 밀씨』를 보내드립니다.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 본인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월 5,000원 이상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경리과 02-747-8501, 내선 5)
국민은행 031-01-0422-625 /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 2019.4.1.~2019.9.30. 기간 중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선숙	강영순	강철민	권오현	김국자	김명희	김성선
김세동	김순열	김안례	김안식	김애라	김애련	김영길
김영임	김영재	김재덕	김정현	김최숙	김춘연	김태훈
나원연	두옥순	마인선	박경순	박동영	박명주	박상욱
박진용	백혜련	서미숙	서우선	서지연	석혜옥	손성금
송영리	안정순	안정임	안정찬	유수민	윤순희	윤종우
이근창	이미옥	이상국	이상화	이선자	이승덕	이승훈
이용길	이윤희	이정희	이종숙	이주현	이진정	이현영
이형선	이혜영	임승욱, 윤혜원		장금자	장순태	전숙자
정금예	조미영	조복희	조성재	주현진	최금주	최범균
최선희	최세현	최순록	최안나	최은정	최인정	최정미
하혜전	한경숙	홍경희	홍진배	황인희	익명	